AI 신약개발 리딩기업, 韓 집결

AI 파르마 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IBM왓슨 등 글로벌 기업 9곳 참여
전세계 개발사들 기술 동향 공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전세계 리딩기업들이 사상 처음 서울에 모인다.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직접 AI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신약개발에 활용할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어서 국내 제약사들에겐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AI 파르마 코리아 컨퍼런스(Pharma Korea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세계 인공지능 개발사들의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사와의 제휴를 통해 신약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 협회는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월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센터 추진단을 설립하고, 국내 제약기업 중심으로 2차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공지능 기술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민간단체가 대거 후원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개발 성공의 열쇠-협력과 혁신'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 제약사와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업체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흐름을 주도하는 국내외 기업 최고 책임자들이 컨퍼런스 연자로 참석해 최신 정보와 기술동향을 제시한다.

신약개발 목적의 AI 솔루션 분야의 선진 기술을 보유한 IBM 왓슨을 비롯, 누머레이트(Numerate), 뉴메디(Numedii), 투XAR 등 미국계 회사와 일본의 DeNA, 한국의 스탠다임, 신테카바이오, 3BIGS 등 9곳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다.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의약품분야 AI솔루션 개발사들의 보유기술과 신약개발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제약사와 국내외 AI 개발사간 비즈니스 파트너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추진단장은 "세계적 인공지능업체들의 신약개발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웅제약, 해외 진출 발판 '외국인 인재' 물색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참가
한국어 교육·취업특강 등도 추진

대웅제약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글로벌 인재 채용을 위해 10월 1~2일, '2018 KOTRA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다.

대웅제약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서의 비전과 함께 대웅제약이 진출해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미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8곳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대웅제약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추후 선발된 인원은 해외 현지 법인 및 국내 본사에서 마케팅, 영업, 연구개발, 생산 등 역량에 맞춰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박람회 현장 '외국인 취업 선배 특강'에서는 대웅제약 글로벌 사업본부 소속의 셀레스트데이비드(필리핀) 씨가 취업성공담을 공유하고 기업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유학생 박람회에서 외국인 방송인들이 참여해 특강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행사에서는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외국인 직원이 선발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대웅제약의 해외 시장 성과가 앞당겨짐에 따라 우수한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내 구직자 외에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박람회 참가와 상시 채용을 통한 인재 발굴 외에도 외국인 글로벌 우수인재 선발 프로그램, 캠퍼스 리크루팅, 한국어 교육지원, 외국인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통해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글로벌 우수인재 리크루팅'은 국내외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웅제약이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 국적자, 유관 전공, 경력 및 한국어 또는 영어 등 어학 우수자에 한해 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오늘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 '뚝'… 75만→18만원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단위: 원)

구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건강보험 적용 이전* 환자부담	최소~최대 평균	53만 ~ 75만 66만4436	36만 ~ 70만9800 48만445	31만5000 ~ 55만 41만9945	26만5830 ~ 55만 38만1767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보험가격 및 환자부담	보험가격 환자부담 (30%~60%)	29만9195 17만9517	28만7688 14만3844	27만6180 11만472	29만3124 8만7937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뇌·뇌혈관을 MRI로 검사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기법을 추가해 '특수검사'를 받을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는 확대된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다.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세경 기자

마켓컬리 서귀생 MD /마켓컬리

고급 레스토랑 요리, 집에서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 배달

인터뷰 '마켓컬리' 서귀생 MD

하룻밤만에… '샛별 배송' 구축
지난해 465억 매출 초고속 성장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상품들을 집에서도 직접 만들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죠. 좋은 품질의 맛있는 요리들은 '마켓컬리'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소비자들에게는 '마켓컬리'가 믿고 구매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죠."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 만날 수 있는, '샛별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모바일 프리미엄 마트 마켓컬리의 MD1팀 서귀생 MD(상품기획자)를 최근 본사 사옥에서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마켓컬리' MD로서의 책임감은 물론, '마켓컬리'의 강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5년 설립한 마켓컬리는 70여가지의 꼼꼼한 자체 기준을 통해 엄선된 신선식품, 해외식료품, 가정간편식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식품 큐레이션 전문몰이다. 밤 11시까지 주문 시 아침 7시 이전에 배송을 완료하는 주7일 '샛별배송'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

-대표 히트 상품은 무엇인가.

"단연 PB 상품이죠. 셰프들과 함께 기획한 상품들인데 퍼플과 블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80여 개의 PB 상품들은 일반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 반찬가게에서 만드는 획일화된 상품과는 차별화했죠.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요. 주변에서 원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된, 요리 난이도가 있는 상품이 블랙이고, 조금 더 간단한 형식의 상품이 퍼플입니다. 블랙의 경우 밀키드 상품이 대부분인데, 요리는 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에피타이저, 샐러드, 메인요리까지 풀코스로 즐길 수 있게 구성한 상품이라 활용도도 높죠."

-상품을 기획할 때 가장 신경쓰는 점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짜 맛있는 음식들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간이 '마켓컬리'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켓컬리'에 준하는 프리미엄 상품을 제안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마켓컬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성'에 가장 신경 쓰죠. 상품만큼 신경쓰는 것이 패키지인데,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변질이나 파손되면 안되죠. 그래서 회의도 많이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마켓컬리도 간편식이나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리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 성별, 구매 가격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맛도 맛이지만 영양가와 칼로리까지 생각한 '샐러드'가 인기예요. 글램핑의 시즌이라 그런지 글램핑에 어울리는 밀키트 상품이나 1인가구를 위한 미니멀한 상품들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켓컬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마켓컬리'라고 하면 단순히 쇼핑만하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신뢰가 기본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앱에 접속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보는 상품들이나 인지도 없는 브랜드의 제품이 대다수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생소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기가 꺼려질텐데, 그런 편견을 뛰어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마켓컬리' 제품이야? 그럼 믿고 주문하자'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마켓으로 거듭나야죠."

한편, 마켓컬리는 핵심 서비스인 큐레이션과 샛별배송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15년 연매출 29억, 2016년 174억, 2017년 465억원으로 초고속 성장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안정신 이대목동병원 전임의

종양외과학회 우수연구상

안정신 이대목동병원 외과 전임의(사진)가 연세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개최된 대한종양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은 안 전임의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방암 진단'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이번 상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안 전임의는 오는 10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유럽종양학회 주최 '2018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젊은 유방암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변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